

도시화와 청소년 문제

최 중 헌*

- I. 문제의 제기
- II. 도시화의 성격
- III. 도시화와 청소년 문제
- IV. 맺음말

I.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도시화라는 점이다. 현대인의 생활은 어떤 방식으로든 도시와 직·간접의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도시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1880년대 세계적으로 인구 2만 이상의 도시에 거주한 인구는 2%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9%, 1940년에 19%, 1990년에는 45%로 되어 2000년대에는 인류의 과반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는 도시 거주인구가 30%수준이었으나 1990년을 넘어서면서 전체인구의 75%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어 나라 전체가 도시중심사회로 변모하였다.

70년대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산업의 발전은 사회의 각 부문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산업화와 함께 이루어진 도시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변화보다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요즘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의 도시문제들은 지난 20여년에 걸친 도시화과정에서 누적되고 심화된 결과, 오늘날에 이르러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도시화, 산업화 따른 사회구조변화는 가족해체, 아노미현상, 빈부격차, 소외현상 및 박탈감을 초

* 고려대학교 강사, 사회학박사

래하였으며, 이러한 사회구조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현저하게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이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도 발생되었다(임희섭, 1984). 특히 일반적인 자본주의 발전과정과는 차이를 보이는 제3세계의 발전과정은 도시화의 모습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소위 ‘종속적 도시화’ ‘불균형적 도시화’ 등 파행적 양상이 나타나는 바, 과잉도시화, 도시중주성의 심화, 도시빈민의 양산, 비공식부문의 확대 등에 따라 청소년 문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화가 지니는 의미를 규명해 보고,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들이 도시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현재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II. 도시화의 성격

1.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성격

사회과학에서 도시화만큼 다양하게 사용되는 개념도 드물다. 특히 도시화는 산업화, 근대화와 혼동하여 사용되거나 이들 개념과 상당한 부분에서 내용의 중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성¹⁾이 도시화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시화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확립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도시적urban’이라는 의미와 행정적인 정의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쓰이는 도시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사회학에서 ‘도시적’이라는 의미는 인구나 산업구조의 차원 뿐만이 아닌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행정구역상의 도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행정구역상의 도시이면서 도시적이지 못한 부분의 존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며 역으로 행정적으로 도시가 아니면서 도시성을 지닌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도시화urbanization라는 개념은 한 국가 내에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는 과정이며 또한 도시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확장되어가고, 따라서 도시성urbanism이 증대되는 사회변동 현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된다.

물론, 그에 따른 계기능의 집중 또한 포함되어 설명되기도 한다²⁾.

그런데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농촌은 거의 도시화되고 대도시는 거대도시metropolis로 바뀌었다.

거대도시 공동체에서 중심상업지역(CBD)의 빈곤층의 쇠퇴, 공해문제, 범죄, 도시재정의 위기, 주택문제 등이 예기치 않게 나타나 거대도시 공동체는 사회질서 유지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대도시 사회구조가 복잡하게 분화되었으나 이 분화된 사회단위들이 적절하게 통합되지 못한 데서 나타

1) 또한, 도시성urbanism이라는 개념은 루이스 워스 Louis Wirth의 “Urbanism as a way of life(1983)”에서 유래되었다. 워스는 도시의 인구규모, 인구밀도, 인구의 이질성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생활양식의 변화를 도시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2)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 개념을 대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도시화는 인구집중 및 도시사회 구조의 확산과 도시문화와 생활양식의 확산 등을 특징으로 하며, 산업화는 기술·산업구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기술의 발전과 직업의 전문화, 공장체제 확대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고, 근대화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 가치체계의 변화와 제반 사회제도의 변화를 강조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강대기, 1987)

난 결과였다.

그런데 도시를 설명하는 기존 시카고 학파의 생태학적 접근은 도시를 독립된 유기체로 보아 도시가 성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60년대 이후의 도시는 스스로 성장, 발전한다는 생태학적 전제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기체론적 유추에 따라 계속 성장, 발전해야 할 도시가 중심지의 슬럼화와 재정적 위기로 성장이 중단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유기체의 내적 부분들이 조화와 협동을 지향하는데 반해 대도시는 인종집단간의 갈등, 빈부격차에 의한 계급갈등, 일탈과 폭력행위의 증가로 생태학적 접근은 도시사회학자의 지배적 이론으로서 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막스주의자들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문제를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기존 생태학적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으로 정치경제학자들은 믿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신도시사회학 *new urban sociology*이라고 불렀다³⁾(Walton, 1981).

정치경제학자들은 도시의 형성이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시카고학파에서는 자본주의 체제하에 형성된 도시가 특수한 도시형태가 아니라 보편적 도시형태로 보는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Castells, 1979 : Jaret, 1983).

2. 제3세계 도시화의 특징

제3세계란 서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통 경제적으로 저개발된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극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지칭하는데 개발도상국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서구의 산업혁명 이전 도시, 즉 전산업도시 *preindustrial city*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위생조건의 향상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확대로 서구 국가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이한 도시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 과잉도시화 *over-urbanization*와 도시종주화 *urban primacy*이다. 과잉도시화와 도시종주화는 밀접히 관련된 현상으로 모두 농촌인구의 대거 도시집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잉도시화는 쉽게 말해서 한 도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과다한 인구를 가지게 될 때를 말한다.

즉 그 도시의 산업화수준 또는 직장과 주택보급이 그 도시의 인구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Davis and Golden, 1954 : Caster 1979).

한편 과잉도시화의 심화과정은 전적으로 앞서 말한 농촌의 배출요인만이 아니고 도시의 흡인요인 *pull factor*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초기 단계에는 농촌의 배출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도시의 흡인요인은 막연한 직업에 대한 기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지만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도시

3) 이러한 정치 경제학적 접근은 다음 네가지 전통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는 영국의 신베버리안 Weberian의 전통으로 자원의 분배과정을 주체의 계급화 과정으로 보면서 차츰 막시즘적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룩된 것이다. 두번째는 불란서의 알튀세리안 막시즘 Althusserian Marxism에 입각한 것으로 이들은 미국의 경험주의자들로 1960년대 자원획득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전개 된 도시의 계급간 경쟁과 갈등관계를 연구한다. 세번째는 종속이론적인 접근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로버츠 Roberts (1979) 등은 세계 경제체제론적 시각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침투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에 각종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의 흡인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강대기, 1987).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잉도시는 한 국가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도시에 국한되어 외국접촉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도시에는 서비스부문이 국내 어느 도시보다 발달하게 되며 또 행정 및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 기술인력과 정치적 자원이 필요한 2,3차 산업이 이들 도시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수도나 그 국가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여타 다른 도시보다 그 규모나 기능면에서 월등한 위치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를 도시중주성 *urban primacy*이라 하고 이러한 위치를 차지한 도시를 중주도시 *primate city*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에서 과잉인구를 낳게 되고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들을 생산하게 한다.

3. 도시화와 범죄

도시화와 범죄행위간에 명백한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급속히 진행된다면 범죄발생의 개연성은 높아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 폭력행위, 그밖의 일탈행위는 상대적 박탈감과 관계가 있다. 産業都市化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기업의 소비충동적 선전에 의해 자신들도 상층계급과 같은 생활을 해야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실재는 그렇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 상대적 박탈감은 바로 비행이나 일탈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욕구에 대한 좌절감을 먼저 일으키며, 좌절감은 일반적으로 즐겁지 못한 것이 되며 매우 고통스러운 심리적 상태와 함께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개인주의가 개인의 선택범위를 확

대시킨다. 따라서 규범의 상대성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높임으로 일탈행위가 증가하며, 도시의 문화적 이질성과 갈등은 일탈기회를 제공하고 일탈하려는 욕구를 자극시킨다. 그리고 도시의 풍요와 부는 인간의 물질적 탐욕을 자극하고, 인구가 동과 사회변동은 도시사회의 도덕적, 제도적 변화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도덕률의 불확실성 또는 사회통계의 약화를 가져와 범죄를 낳게 한다고 볼 수 있다.

III. 도시화와 청소년 문제

1. 청소년문제의 성격과 심각성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시대 또는 사회에 따라 다양하다. 청소년이란 개념 자체가 통시적인 것이 아니며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강조되기 시작했다. 청소년,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사회의 도래와 때를 같이한다고 한다.

산업사회에서는 테크놀로지가 복잡해지고 분업화가 크게 진행됨에 따라 잘 교육 받고 훈련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훈련과 교육기간이 산업사회 이전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허용하는 연령이 늦춰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과 훈련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 참여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육체적으로는 성숙하였으나, 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는 성인역할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집단이 확대되고 청소년기는 점점 더 연장되며 청소년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각종 청소년문제 및 비행이 왜 심각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비인간화, 소외, 익명

성, 가정기능의 변화,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 결여로 인한 법치질서의 혼미,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퇴폐적인 성인문화와 각종 사회환경 등이 수없이 거론되고 있다(양춘, 1984).

근년들어 청소년 문제에 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문제에 관한 연구 및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청소년비행은 폭력, 강도, 살인 등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음주 흡연 등 각종 풍기문란 또는 불량행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문제는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청소년에 관한 사회문제'라고 일단 규정할 수 있고, 사회문제가 개인문제와 다른 점은 그것이 공공문제에 관한 것이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과 사회의 움직임과 연관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 문제는 살인이나 환각제 흡입, 가출, 자살, 강간, 폭행 등의 범죄나 청소년 비행으로 표출되는 것 뿐만아니라, 드러나지 않았지만 말없이 겪고 있는 문제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문제는 청소년비행이나 문제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살고 있는 환경, 청소년의 고민, 일상생활, 가치관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청소년비행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인 흉폭함까지 더하며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가지적으로 보여준다.

전체 형법범에서 차지하는 소년범(만 20세미만 범죄자)의 비율은 1992년의 경우 11.1%로서 1980년 이후 대략 15~9%의 선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인구 구성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성인인구가 증가하는데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인구당 범죄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인구비(만명당)를 보면, 1970년에 71.8명이었다가 1980년 초반 한때 130~140명의 선까지 급증한 뒤 다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여 1992년에는 102.7명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성인형 범범의 인구비는 오히려 감소(191.6→188.3명)하였음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범죄의 하위유형별 소년범 인구비(만명당)의 변화추세를 보면, 강력범(살인, 강간, 강도 등)이 1975년의 3.3명에서 1992년에는 5.1명, 폭력범(폭행, 상해 등)이 같은 기간동안 40.9명에서 55.7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재산범(절도, 사기 등)은 4.9명 증가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세가지 중에서 재산범이 가장 온건한 형태의 범죄유형임을 감안하면 청소년범죄는 양적인 면에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점차 흉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또한, 최근 중·고교는 물론 국민학교 주변에 마저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3년간(93.9~95.9) 강도·절도·폭력·기타 비행 등으로 학생 56,000여명이 퇴학·정학 등 징계조치되었고(95,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중·고교생이 약 56%가 돈을 빼겼거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2. 도시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어느 사회에서나 청소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시키는 문제이다.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화는 개인들을 확립된 문화전통과 조직화된 생활양식에 적응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그 사회의 지속과 안정

에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화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여러가지 잠재능력을 실현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도시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가정, 학교, 친우집단, 대중매체 등 사회화 담당 기관들이 일관된 태도, 가치, 사고방식 및 욕구성향을 심어주지 못하고 상충되는 내용을 전하는 경향을 빚어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불균형적 사회화과정 속에서 다소 혼란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도중수, 1992).

특히 부모의 애정과 양육방식은 어린아이의 정서적 발달과 행동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정의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도시 성장 과정에서 가족구조와 가족의 역할이 크게 변화하는 바, 전통적 가치에 입각한 부모 자식간의 수직적 관계는 약화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낮시간 동안의 주된 활동무대도 가정 외부로 옮겨가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위가 크게 줄어들고 가족의 사회통제 기능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가족의 변모와 더불어 친족조직의 개인에 대한 구속력도 현저히 약화된다. 도시지역에서 친족은 도시민들의 인간관계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성격은 전통시대에 비하여 사회통제 기능을 크게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단독가구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단독가구의 증가는 도시중심 사회에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는 지표가 된다. 단독가구의 확대는 대규모 인구이동의 초기에 단신이동이 많이 일어난 사실로 일부 설명된다. 인구이동이 심할 경우 도시로 단신이동한 사람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분리되면서 친족제

도 및 세대를 통한 사회통제와 사회통합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황에 노출된다. 가족 및 친족집단이 가진 사회통제가 도시화의 과정속에서 약화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핵가족화와 단독가구의 확대는 부부간의 조정기능 부재, 가족간 대화부족, 가정교육 미흡,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또는 무관심,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등을 초래하고, 이들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비행 등 제반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3. 도시화와 사회통제

도시화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가족의 통제기능 약화와 함께 사회의 문화·규범적인 사회통제의 약화가 높은 청소년비행율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가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공유된 문화적 요소가 약화되어 공식적인 조정과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된다. 쇼(Shaw)와 맥케이(Mckay)는 위스의 '도시성'과 더불어 경제적인 곤궁과 인구의 이동성 등을 주목하면서, 이들에 의해 초래된 문화적 해체가 사회통제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행의 발생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사회통제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논점이 Fischer(1981)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도시생활에 있어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시화 자체가 친구관계나 개인들간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대도시에 이웃간의 관계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도시민들은 자신의 사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는 큰 관심과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만 공적 생활에서의 이러한 변화이다.

예를 들면 현대의 도시민들은 길거리의 불량소년에 대해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별 청소년들에 대해서 개별한 애정을 가지고 직접 타이르고 훈계하기 보다는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방식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제이론가들은 현대의 도시생활에서 공적인 규범을 유지하는 효과적 방법은 제도적인 통제라기 보다는 이웃들간의 상호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이러한 사회통제는 개인과 사회간의 결속이라는 차원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데, 애착*attachment*, 헌신*commitment*, 관여*involvement*, 신념*belief*등 사회결속의 네가지 요소가 강할수록 개인은 일탈적인 행동을 덜하게 된다고 본다.

4. 종속적 도시화와 청소년 문제

제3세계 국가의 자본제적 공업화는 그 기반이 중심국의 산업자본의 수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고용증대 효과는 교역을 통해 형성된 과잉인구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중심국의 산업자본과 주변국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생산방식으로서의 기술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어 있는 노동절약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수출의 중심국의 자본제적 축적이 상당히 진척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체화되어 있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즉 주변 국가에서 사용되어지는 기술은 중심국의 자본축적 단계와 그 단계에서의 자본과 노동력의 균형고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 일방적으로 이전되어진 것이다. 이결과 중심 산업자본과 주변 노동력 사이의 고용의 균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변 과잉인구는 흡수능력의 제약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진다.

이러한 과잉인구는 자본제적 축적의 한 결과인 도시의 성장과 함께, 점차 도시의 3차 부문으로 이전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2차 부문 고용흡수능력이 제약 또는 결여된 상태에서 인구압력이 증대함으로써 야기되어진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본다. 즉, 흡인요인이 결여된 가운데 배출요인에 의해 과잉인구의 형태상 이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3세계 국가에 있어서의 3차부문의 이상비대*hypertrophy* 현상은 중심부 국가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될 수 없는 제3세계의 특수한 과잉인구의 법칙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인구는 필연적으로 도시민민을 양산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업소의 증가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민민은 도시에 사는 생계가 어려운 절대적 빈공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만 가난한 노동민민을 포괄한다.

도시민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는 정확한 추계가 없다. 행정적으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외에 불량주거지 또는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두 도시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을 예로 든다면 적게는 50만명에서 많게는 2백만명 정도로 추계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특징은 도시공간의 상품화이며, 도시공간의 상품화는 도시민민의 빈곤화를 더욱 구조화 하였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아파트가 이들의 주거해결에 거는 유일한 기대다. 자본주의적 공간의 재 구조화는, 도시민민에게는 도시에 밀려난 도시민민의 양산을 의미하게 된다.

이들은 대개 자기집이 없으며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값싼 불량주거지에서 살거나 사용하는 방수를 줄인다. 이는 어린 자녀를 둔 핵가족의 경우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두 가족이나 혹은 노모나 형제 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도 많고, 모든 식구가 반듯이 잠을 잘 수 없어 칼잠을 자는 경우도 많다.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도 책상이 있는 집은 별로 없다. 따라서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중학교까지 공부를 착실하게 하던 아이들도 야간이나 실업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취직하거나 가출하여 옆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들의 가족생활은 다른 계층에 비해 불안정하다. 가족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경우도 많다. 편부모 가정의 많은 것도 도시빈민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이혼이나 별거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사별에 의한 경우도 많다. 이 지역 남성들은 젊어서부터 막노동자로 일한 경우가 많고 노동강도가 심해 일찍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치료를 서두르지 않아 폐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도 많다.(조은, 1994)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는 “다방, 카페, 룸싸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 등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 및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우리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한 접객업소의 총수와 맞먹는 정도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향락산업이 이상 비대화한 것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생산적 서서비스 산업”이 확대된 서구의 경우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우리사회에서의 유흥업소의 양적 팽창은

단순히 물질주의, 금전주의와 같은 산업사의 일반이 세속화 현상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또 가치체계의 혼란과 사회심리적 징후만으로 이해되기도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파생한 종속적 도시화 현상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즉 도시와 공업중심의 산업화가 농촌으로부터 많은 인구를 방출한 결과 도시이주 인구의 상당부분이 ‘도시비공식부문 *urban informal sector*’에 자리잡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과잉도시화의 구체적 징후로 이해된다. 과잉도시화에 의한 유흥노동력과 잠재적 실업자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 산업부문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식으로 일부 편입되기도 해 왔으나, 기업적 형태의 향락업소에서 유인하는 보다 나은 조건에 흡수되거나 수많은 영세적 자영업자를 배출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김문조·김선업, 1992).

이러한 향락업소 가운데에서도 특히 영세업체들은 지역적으로 주로 도시빈민지역이나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 산포하는데, 특히 투자의 영세성과 관련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청소년이 접근이 용이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양산은 청소년 일탈에 좋은 조건이 된다.

IV. 맺음말

청소년문제의 단초는 기본적으로 사회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가정과 학교와 친구집단, 대중매체 등을 통한 사회화 과정속에서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성장해 간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의 곳곳에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햇빛과 그늘이 자리잡고 있다. 이성문제·친구문제·성격문제·가정문제·학업문제·진로문제

등 각종 문제로 고민하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는 천편일률적인 양지보다는 어두컴컴한 그들이 훨씬 자극적이고 유혹적이다.

더우기 종속적 도시화에 기인한 제3세계의 파행적 도시 성장은 그 자체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비공식 부문과 서비스업의 이상비대현상을 초래하고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원인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일관성과 권위의 상실에서 찾는다면,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을 문제아라는 입장이 아니라 사회의 피해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좌절감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시의 각종 환경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욕구를 건강히 분출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도시 사회운동이 이제는 가출·학교폭력 등을 막아줄수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기. 1987. “현대도시론”, 민음사.
 김문조·김선엽. 1992. “청소년 유해업소의 존재 양식과 이용실태”, 한국청소년학회.
 김한준. 1989. “현대도시문제의 이해”, 한길사.
 도종수. 1984. “청소년문제”, 사회문화연구소.
 양 춘. 1984.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 정음사.
 윤덕중. 1984. “범죄사회학, 박영사”.
 임희섭. 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정음사.
 조 은, 1994. “도시민민의 좌절과 소외”, 전망 11월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도시성장과 범죄”.
 Castells.M. 1976. The Urban Question.
 Kentor.J. 1981. Structural determinants of peripheral urbanization.
 Roberts.B. 1978. Cities of peasants,
 Walton.J. 1981. The new urban sociology.